

---

# 2021년 제34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8. 20. ~ 8. 2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8. 20.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리포트를 집중 방송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화 현상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기획이 눈길을 끌었다. ‘전통시장 수요장터 인기’는 비대면 시대 대형 유통업체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신선한 먹거리 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전통시장 최우수를 차지한 부천 중동시장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성공요인을 분석한 점이 뛰어났다. ‘청년층 홈베이킹 열풍’과 ‘책과 함께 하는 북캉스’는 코로나19로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짚어내 소재로 삼은 점이 신선했다. ‘가족과 한적한 역사순례’와 ‘시대를 뛰어넘는 올림’은 방학 중 가족여행과 김대건 신부 탄생 기념 솔뫼성지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를 힐링하는 소재여서 의미가 컸다.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와 전통부채 ‘공작선’ 아이템은 우리나라의 열과 전통문화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점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문 열어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원한 안성휴게소 의원은 고속도로 위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진료 후 바로 조제 까지 해주고 있어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화물차 운전자 등 여행객들을 위한 병원이다
- 부천 중동사랑시장 수요장터 인기몰이  
경기도 부천시 중동사랑시장의 수요장터는 대부분의 상품을 20~30% 할인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배달 시스템 도입후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하루 방문객은 2만 여명에 달한다.
- 청년층 중심 코로나19가 부른 '홈베이킹 열풍'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실내에서 가능한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베이킹이 청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0~30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홈베이킹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 관련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걱정 없이 가족과 '역사 순례' 즐겨요  
전남 무안군 몽탄역은 1913년 세워진 오래된 역으로 작은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다. 철도 승차권의 변천사부터 각종 장비 전시는 물론 철도승무원 복장을 착용하고 일일 승무원 체험도 할 수 있다. 영산강 주변 정자인 식영정도 스트레스를 날리는 명소다.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남 당진시 솔뫼성지는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으로 2015년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다녀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상도 마당에 설치되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생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복합예술공간에서 기념행사가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8. 20.	시청률	0.011

### 【총 평】

‘진안고원 낭만농부 - 전북 진안’편은 자연농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67세의 낭만농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소비해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강산을 오염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호소하는 자연 농부의 큰 울림이 인상적이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농의 매력이며 농작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즐거운 삶을 그려냈다.

자연농은 건강 회복과 건강을 지키는 농산물이며 자연이 키워주는 것에 그대로 시중들고 그대로 거두는 역할만 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만큼 거두면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시작부분에서 자연농으로 지은 농산물에 들기름으로 부친 부침개, 씨만 잘 넣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밀로 만든 수제비를 나누는 모습은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흡인력을 이끌어내는 구성이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먹는 것이 곧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연농법을 고수하게 되었다. ‘낭만 농부’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고 계시고 이 상표권으로 농산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잡초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잡초를 제거해주면 잡초들이 녹아서 다시 유기물이 된다는 자연농의 농법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좋은 먹이를 먹일수록 건강한 닭이 되고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롭지만 원칙을 지키는 닭사육장의 모습이 신선했고 감동적이었다.

자연농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 요리사와 자연의 재료로 음식을 공유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였다. 단골 식당에서 좋은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요리사의 인터뷰에서 보통의 농산물은 성장촉진제를 써서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으며 좋은 식재료는 특별히 무엇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과 건강을 지켜낸다는 이치를 들려주었다. 또 폐교 운동장을 밭으로 바꿔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고 4년 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자연에서 얻어지는 블루베리를 얻는 농법도 새롭게 다가왔다.

강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의 것인데 우리가 오염을 시키면 후세들이 설 자리를 막는 것이라는 철학이 기후변화로 점점 힘들어지는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무엇이든 빨리 빨리 흘러가야만 하는 삶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느끼게 해주었다. 오직 자연의 산물로만 작물을 키워내는 자연 농법의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사회적으로 작은 감동이 필요한 요즘 시기에 큰 욕심 없이 사는 무소유의 철학을 느끼게 해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8. 21.	시청률	0.000

### 【총 평】

‘찐빵으로 뚝뚝 뭉친 가족의 선한 영향력’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4남매의 독특한 경영으로 찐빵을 명물화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으로 지역 농업도 살리는 성공 스토리를 담아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성공담은 사기진작과 해결방안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찐빵 생산과 판매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구성이 자영업자와 앞으로 이를 계획하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역할을 했다.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팥을 찐빵의 재료로 활용하면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부각한 점도 긍정적이다. 부모와 4남매, 예비 며느리까지 화목한 가운데 협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을 그린 구성도 흡인력을 높였다.

“지금이 귀촌의 적기이다. 농촌에서의 기회가 클 것이다”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도시민과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

### 【구성 및 내용】

전남 부안의 염전 인근에 염전 보다 더 유명한 명소가 있다. 이 곳에는 명소는 바로 찐빵집이다. 찐빵집의 대표인 주인공은 부안을 탈출하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다. 귀농 하면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참신한 내용으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상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등 지금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였다.

2018년 농식품 가공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금으로 받은 1억원으로 찐빵집을 열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내려와 돕는 첫째, 대표를 맡고 있는 똑똑한 둘째, 대도시에서 하던 치위생사를 그만두고 내려온 셋째, 아버지한테 찐빵 제조법을 전수 받아 찐빵을 만들고 있는 막내아들, 매장 총감독을 하는 며느리가 뚝뚝 뭉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공요인으로는 젊은이 입맛에 맞춘 변신, 사진과 SNS를 통한 광고 효과, 염전뷰 등 주변환경의 스토리화, 대를 이은 화목한 가족경영, 우리밀 등 지역농산물 활용,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이 꼽혔다.

부모님의 찐빵집을 이어 받아 여러가지 다양한 찐빵과 음료 등을 개발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으며, 부안에서 청년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꼽히는 슬지제빵소를 통해 청년관련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찐빵가게에 필요한 식품들도 지역의 청년 농업인으로 부터 제공 받으며, 단순히 찐빵만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융복합 기업 인증을 받아 지역의 좋은 제품도 함께 알리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과 농업과 사람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잊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8. 22.	시청률	0.002

### 【총 평】

‘친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슈 텔링’은 남북을 잇는 소통 채널, 남북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성김 미국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측 북핵 수석대표도 방한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을 잇는 소통 채널인 남북 통신선이 다시 복원된 내용을 들여다보며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과 평화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각각 다른 점을 구분하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16일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훈련은 예전에 비해 1/12정도로 축소되었고 대규모 보병 위주의 훈련이 지휘관들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바뀌었다. 특히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 훈련’이 시작된 직후인 8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엄청난 안보위기’까지 거론하며 엄포를 쏟아냈다. 이런 반대 의사 표시는 김일성 주석시대부터 해오던 것으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던 과거의 비난 담화문과 비교했을 때 많이 순화됐다는 것은 ‘북한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또한 ‘담화 이후 한미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이 없는 상황이다. 김영철의 담화는 김여정 담화에 이은 대남 책임자로서의 형식적인 발언일 뿐 실질적 군사도발 의지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8월 26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점은 남북한이 분쟁 없이 평화롭게 마치는 것이며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무려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 통신선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북한이 유선 전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감시 목적이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일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영화처럼 사적인 대화는 어렵지만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서는 통신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만남을 이어나간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통신선 스위치를 꺾을 경우, 유엔군은 핸드마이크로 일정을 통보하는 대신 우리 군은 오직 ‘기다림’ 뿐이라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8. 22.	시청률	0.004

### 【총 평】

80대 시니어와 20-30대 청년의 좌충우돌 역지사지 대화로 소통의 창구를 열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한 화두를 던지는 기획의도를 살려나가고 있다. 특히 세대간의 갈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만큼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과 ‘경로석과 무임승차’ 문제를 노년층과 청년층의 상반된 입장을 들어본 뒤 프랑스 사례를 인용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도출해 공감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 무료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의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경로 우대에 대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도 65세, 지하철 무료도 65세부터 우리나라는 행정상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79년 일반열차에 노약자 보호석 제도가 실행되었고, 1980년 지하철 1호선과 시내버스에 노약자석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70세 이상 교통 요금 할인 및 면제가 실시되었다.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이후 65세이상 지하철 요금 무료가 시작되었고, 국가에서 시행한 노인복지 제도중 하나였다. 그러나 처음 무료요금이 실시되었던 1980대에는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4% 그쳤지만, 현재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16%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자료다. 따라서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증가를 두고도 세대간의 이견이 분명했다.

MZ세대는 노인 지하철 요금 무료는 요금 할인으로 바뀌야 한다면, 예전에 비해 젊어진 노인에게 과거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끈대할매는 젊었을 때 고생하고 세금을 낸 당연한 혜택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건강해진 신체적, 정신적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그대로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로석 지정 및 무임승차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당시 노인비율이 낮을 때는 문제가 비교적 없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 노인들도 경로석에서 단순히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좌석을 장시간 점유 한다던가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는 것은 문제다. 노인들의 무임승차 해결방안으로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되 허용시간을 지정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노년과 청년의 상반된 토론이 흡인력과 공감도를 높였고, 노인과 청년층이 갈등을 해소하는 마무리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토론이 고조됐을 때 “한잔 해”하고 건네는 ‘물 한잔’ 설정이 프로그램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노인의 기준 설정, 대중교통 노인우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벌인 뒤 노인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성이 몰입감과 설득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8. 22.	시청률	0.002

### 【총 평】

‘사북의 봄 1980 사북항쟁’편은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던 동원탄좌 소속의 탄광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여 어용노조를 향해 일어난 항쟁을 다루었다.

1980년 당시 동원탄좌 사북 광업소의 광부들은 정부의 노동 3권 탄압 등으로 기본권이 제한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1979년 제 대 노조지부장선거에서 어용지부장이 당선되고, 공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광부들 스스로가 이 부정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행동했다. 1980년 5월 6일부터 1군 계엄사 '사북사건합동수사단'이 2백여명의 주민들을 경찰서에 연행,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했다. 81명을 폭도로 몰아 계엄포고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21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2005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북사건 당시 항쟁지도부였던 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로 확정, 발표했다. 또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구성 및 내용】

사북읍은 석탄 문화 유적과 광부들의 생활상을 재조명하고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석탄 문화재를 열고 있다. 정부가 폐광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석탄을 실어나르던 광차를 관광사업으로 개발해, 광차체험, 연탄만들기, 폐경석에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 강원랜드는 사북광업소의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곳이, 40여년전 인권을 유린당하고 수많은 광부들이 고통 받았던 장소임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아직도 폭도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관계자들이 아무도 사회 주류와는 연이 닿지 않는 사람들만의 항쟁이었다는 이유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마지막 인터뷰가 쓸쓸함을 남겼다.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피해자 두 분의 증언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사건의 내용이 세세하게 잘 정리되어 흡인력 있었으며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특히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소통과 실탄 그리고 발파용 다이너마이트 수천 톤을 스스로 지켜 낸 광부들의 회고담은 그들 스스로 “잘한 것”이라는 평가와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은 “잘못 된 것”이라는 회고 등 그들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진실을 바로 잡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다면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방송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8. 22.	시청률	0.000

### 【총 평】

‘데이터댐에 답이 있다!’편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데이터댐의 개념, 일자리 창출 효과, 최근 활용도, 향후 과제 등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점검하고 분석해 보았다.

데이터댐이 무엇이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피는 등 수요자 니즈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관심을 유발했다. 데이터댐이 차세대 혁명의 미래핵심 동력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산업발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렸다. 5G와 AI 융합을 통한 데이터댐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자세하게 접근해 데이터댐에 관련된 한국판 뉴딜이 곧 나의 뉴딜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일깨운 기획이 탁월했다.

### 【구성 및 내용】

디지털 뉴딜로 가는 첫 관문으로서 데이터를 모아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데이터 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산업 변화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디지털뉴딜의 전략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데이터를 모아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댐이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이자 차세대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술은 음성과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 데이터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5G 통신망이 깔리면 빅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고 데이터 통신망이 넓어지고 생태계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1년 동안 9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데이터 댐을 통해 데이터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가 디지털뉴딜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관련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AI창업캠프를 찾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데이터 라벨링, 디지털 치료제 활용 등 최근 동향을 보여줘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바뀔 미래사회를 조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진행 상황을 조명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데이터 댐’을 통한 국가와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사례를 들어 간결하게 소개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8. 22.	시청률	0.009

### 【총 평】

‘델타변이와 코로나 백신’편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실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주장’, ‘백신 접종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했다. 연일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여명에 육박하고,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변이의 차이점과 감염률을 분석해 경각심을 높여주었다.

돌파감염 사례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의 타당성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또 백신 현황과 하반기 접종 계획을 알아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이유를 타당성 있게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해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배 더 빨리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는 듯 일상을 되찾아가던 국가들이 다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 강화로 돌아섰다. 미국의 경우 이제는 전체 감염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달 넘게 네자리수 신규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델타변이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만들어 확진이 발생하면 직접 출동을 하여 현장 검사와 관련 조언을 전하는 등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델타변이는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 감기 및 천연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높고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생산수는 2.5명인데 비해 델타변이는 5명에서 최대 8명까지 감염되는 델타변이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갖게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이미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는 얀센백신이 델타변이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믿을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한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백신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항체 효력이 떨어져 돌파감염이 발생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감소하나, 중증 진행 방지 효과는 80,90%로 높게 유지된다는 보고서 등을 통해 백신접종의 타당성을 전달하였다.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는 백신별 감염예방 효과가 각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은 필요하다. 돌파감염은 어쩔 수 없지만 중증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